

삶의 질과 사회적 연결망

: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공공정책부문 효과분석*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Support Network

: The Influence of Public Policy to Social Support Network

김상민**. 김현호***. 이성원****

Kim, Sangmin·Kim, Hyeonho·Lee, Sungwon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 IV. 분석 결과
- V. 결론 및 정책 시사점

2011년부터 OECD는 국가별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통합지수인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BLI)'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공동체 영역, 즉 사회적 연결망의 질(quality of support network)이 최하위에 랭크되어, 그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사회적 연결망은 사회적 자본 논의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사회적 자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자본 자체가 다차원적 특성을 갖고 있어 다양한 정책 부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회적 연결망의 구체적 현황은 무엇이며, 다양한 공공정책 부문이 사회적 연결망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 까? 본 연구는 사회적 연결망의 현황을 간략히 검토하고, 사회적 연결망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 부문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연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사회적 연결망 및 공동체 부문을 중심으로」의 일부 내용을 토대로 발전시킨 논문임을 밝힙니다.

** 주저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동저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교신저자, 강릉원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조교수

논문 접수일: 2019. 08. 27, 심사기간: 2019. 08. 27 ~ 2020. 03. 13, 게재확정일: 2020. 03. 13

우선 삶의 질, 사회적 자본,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사회적 연결망 증진을 위한 공공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서울서베이(2017)를 활용하여, 사회적 연결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개인적 차원, 공공정책 부문, 지역사회 경제적 수준)의 영향효과를 로짓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 참여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정책 부문에 있어서는 문화 및 복지환경, 보행 및 지역 생활환경, 체감 안전의 순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참여적 지역 주민의 참여에 기반한 지역 단위 사업과 같이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 추진이 사회적 연결망 지표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가능하며, 이와 함께 지역의 문화 및 복지환경, 그리고 보행 및 주거환경에 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연결망지표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BNI의 공동체 부문을 구성하는 사회적 연결망의 활성화는 다양한 공공정책 부문이 포괄적이고 협력적으로 결합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적 성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차원의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종합적·장기적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 주제어: 더 나은 삶의 질, 사회적 연결망, 공공정책, 영향요인, 로짓분석

Since 2011, OECD has released the Better Life Index (BLI) as an integrated framework for measuring and comparing the quality of life in different countries. In the case of Korea, the community index, which is identified as the quality of support network, is ranked at the bottom. Theoretically, social support network can be discussed in line with the concept of social capital. Several studies on social capital emphasize that social capital itself has a multi-dimensional characteristic and needs to be comprehensively approached through various policy areas in a collaborative manner. Then, what is the current status of social support networks in Korea and what are the effects of various public policy sectors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social support networks? This study aims to briefly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social support networks and to analyze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veral public policy areas that affect social support networks.

First of all, the paper overviews theoretical discussions about the quality of life, social capital, and social support network, by which it draws some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public policy. Using the Seoul Survey Data (2017), then, the effects of various factors (individual level, public policy areas, and local socio-economic level) are analyzed through logit analysis. From the results, the level of social participation is found to have the largest effect on social support network. The other policy areas are also confirmed to have the positively significant influences to social support network in the order of cultural

and welfare policy, walking and local living environment, and local safety. In short, local projects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such as community-building, can be considered to have the greatest impact on the improvement of the social support network indicator. At the same time, public policies that focus on the local cultural and welfare environments, as well as pedestri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can be effective in improving the social support network indicator. Finally, this study argues that the activation of social support network should be understood as a comprehensive outcome that can be achieved when various public policy areas collaborate together under the long-term strategies at the national level.

□ Keywords: Better Life, Social Support Network, Public Policy, Influential Factors, Binary Logit Analysis

I. 서론

최근 삶의 질, 행복,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정성적 지표 마련의 필요성 증대되었다. 이에 OECD는 2011년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있어 주관적 웰빙 측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별 웰빙 수준을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통합지수인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BLI)'를 제시하였다. 더 나은 삶의 질 지수를 통해 OECD 가입국의 삶의 질 수준 제고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측정 지표 등의 방법론 정립을 기반으로 정책 방향 재설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OECD, 2011). 구체적으로 BLI는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11개 영역(교육, 직업, 안전, 주거, 시민참여, 일과 삶의 균형, 건강, 삶의 만족, 환경, 소득, 공동체의식), 24개 지표(19개 정량, 5개 정성)로 구성된 웰빙 측정체계로서, 11개 영역 24개 세부 지표에 대해 국가별 통계분석 및 설문조사(Gallup World Poll 등)에 기초해 산출하는데, 2011년부터 매년 지표별 현황을 발표하며(11월), 격년 주기로 책자를 발간(「How's Life? - Measuring Well-being」)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1년 26위, 2012년 24위, 2013년 27위, 2014년 25위, 2015년 27위, 2016년 28위, 2017년 29위 등으로 나타나 전체 조사대상 국가 38개 중 중·하위권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특히 BLI에서 공동체(community) 영역은 개인들의 사회적 연결망의 질(quality of support network)의 단일 지표로 구성되는데, 이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있다'로 대답한 응답 비율¹⁾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질문에 72%만이 '그렇다'로 응답하였으며, 이는 2014년 77%에 비해 약 5%p 하락한 수치이다. 특히 전체 36개국 OECD 중 사회적 연결망의 질이 2014년 34위에서 2015년 36위로 하락하였으며, 2017년에는 전체 38개국 중 최하위인 38위를 차지하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어느 국가 혹은 사회를 막론하고 국가·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삶의 질은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앙 혹은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수많은 정책과 사업은 결국 구성원들이 살기 좋은 국가·지역을 만들어 개개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데 그 본래의 목적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삶의 질, 행복 또는 웰빙(wellbeing)에 대

1) OECD (2017)가 제시한 BLI 지표 중 Social Network Support 지표 정의를 그대로 인용하면 「It's a measure of perceived social network support. The indicator is based on the question: "If you were in trouble, do you have relatives or friends you can count on to help you whenever you need them, or not?" and it considers the respondents who respond positively」이다. 이와 함께 OECD는 Gallup World Poll 결과로 지표를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 관심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논의를 확산시켜 왔다. 1960-70년대는 주로 자본주의와 기술의 발달로 인한 소득증가와 물질적 풍요가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GDP를 넘어서(beyond GDP)’라는 흐름을 형성했다고 본다(이정전, 2002; 한준 외, 2014 재인용). 즉 물질적 풍요가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보다는 인간의 타고난 속성이나 인지적 특성에 따라 행복수준이 다르다고 이해하거나(서은국, 2014; Gilbert, 2006), 개인이 가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유와 능력(capability)이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Sen, 1993). 또는 개인이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망이나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삶의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Helliwell and Putnam, 2004; Sarracino, 2010, Diener & Seligman, 2002; Diener & Oishi, 2005). 즉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망²⁾은 실제 물질적 도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한 만족감과 행복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OECD BLI 지수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질이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부분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의 삶의 질 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의 구체적 현황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사회적 연결망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사회적 연결망은 사회적 자본 논의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사회적 자본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의 개념 그 자체가 다차원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자본의 증진은 한 사회의 공공정책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와 직결된다고 강조한다(조권중, 2010). 이는 곧 BLI의 공동체 부문을 구성하는 사회적 연결망의 활성화 역시 다양한 공공정책 부문이 포괄적이고 협력적으로 결합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적 성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연결망의 현황을 간략히 검토하고, 사회적 연결망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 정책 부문의 영향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사회적 연결망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공정책 부문과의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사회적 연결망 증진을 위한 공공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주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이다.

2) Wegener (1991)는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과 사회적 지지는 동일한 개념으로 인지’되거나,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망을 설명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기술했으며, Haws et al. (2009)은 ‘개인이 가족 혹은 지역사회 등과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정서적 지원’으로 설명했다. 최선미(2009)도 사회적 관계망 측면의 네트워크를 ‘개인을 중심으로 한 공식, 비공식적 연결망’으로 정의했다. 본고에서 기술하는 사회적 연결망은 BLI에서 정의한 것과 유사하게 ‘개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금전적, 물리적,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삶의 질과 사회적 연결망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표현은 개개인의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서 주변 사람들과 원만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집단과 사회 차원에서 삶을 영위하고 적응하는 사회적 역량(social competencies)을 축적하는데, 이 사회적 역량이 개개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사회적 연결망을 포괄하여 사회적 자본의 주관적 웰빙 혹은 행복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많은 경험적 연구를 축적시켰다.

Helliwell and Putnam(2004)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유럽가치관조사(European Value Survey), 미국의 벤치마크 조사, 캐나다 사회조사 등을 분석하고, 모든 조사에서 사회적 관계가 개인의 주관적 웰빙을 높이는데 영향을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Sarracino(2010)의 연구 역시 1980-2000년까지 세계가치관조사의 유럽 11개국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영국을 제외한 10개국에서 사회적 자본과 주관적 웰빙이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개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있어 사회적 관계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Diener & Seligman, 2002; Diener & Oishi, 2005).

국내에서도 사회적 연결망과 개인의 행복감,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고령자 및 사회 취약계층의 삶의 질에 있어 사회적 연결망의 중요성을 분석하는 연구(강현정·김윤정·김수현, 2008; 김희경·이현주·박순미, 2010; 김정미, 2012)와 함께, 청소년의 삶의 질에 있어서도 사회적 연결망의 긍정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김은경·김경희, 2018). 비슷한 관점에서 김혜연(2011)의 연구는 연계형 사회적 자본, 즉 사회적 연결망과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지역 주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는 참여수단이나 참여경로 다각화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검토한 사회적 연결망과 개개인의 삶의 질, 주관적 웰빙의 긍정적 영향관계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사회적 관계가 물질적 혜택이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고, 나아가 삶의 만족감, 주관적 웰빙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측면은 시장에서 사회적 연결망의 효과에 대해 정보나 자원이 움직이는 통로(pipe)로 기능함을 강조한 Podolny(2001)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한준 외, 2014 재인용).

그러나 삶의 질과 사회적 연결망의 관계에 있어 긍정적 측면만 보고되지는 않는다. 대표적

으로 한준 외(2014)의 연구는 사회적 연결망이 “물질적, 정서적, 도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통로(pipe)의 긍정적” 역할을 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받거나 아니면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비하함으로써 만족도를 낮추는 일그러진 거울(mirror)과 같은 부정적 역할을 동시에” 함을 분석하고 있다(한준 외, 2014: 3). 이러한 논의는 사회적 연결망이 개인의 삶의 질 및 웰빙 증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은 더욱 극대하고, 동시에 부정적 영향효과에 대해서는 그 효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사회적 연결망 및 사회적 자본

이론적 측면에서 사회적 연결망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논의와 그 맥이 닿아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의 논의배경은 냉전이후의 지역, 국가의 민주화 정도 혹은 경제발전 정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를 찾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물리적, 경제적, 인적 자본이 거의 유사한 지역 혹은 국가 사이에 발생하는 발전상의 차이를 설명하는 잃어버린 연결고리(missing link)로서 사회적 자본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를 전후로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된다. 대표적으로 부르디외(Pierre Bourdieu), 콜만(James Coleman), 푸트넘(Robert Putnam) 등의 연구자들은 신뢰, 네트워크, 규범을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Bourdieu는 사회적 자본을 “상호간의 안면과 인식에 의하여 형성된 제도화된 관계의 연결망 또는 그 관계와 연계된 실질적 잠재적 자원”(Bourdieu, 1985: 248)으로 정의한다. Coleman의 경우 “기능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에 속한 개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Coleman, 1990: 302). Coleman은 사회적 자본을 집단과 조직 내에서 공동목적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특징으로서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즉 내부 행위자들 공통의 목적 달성을 촉진하는 기제로서, 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배타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을 강조한다. Putnam(1993)은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도구인 물질 자본과 훈련을 통해 축적되는 인적 자본과는 달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축적되는데, 공통의 이익을 위한 조정 및 협조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사회적 신뢰 등을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이 외에도 Woolcock(1998)은 “한 개인의 사회적 연결망에 내재된 정보, 신뢰 그리고 호혜성의 규범”으로, Krishna(2000)는 모든 사회에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하는 신뢰와 협력을 사회적 자본의 핵심으로 이해한다.

즉 서로 강조점은 조금 다르지만, 많은 학자들은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이 발생한다고 이해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사회적 관계가 나아가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 연결(connectedness) 혹은 연계(social tie)로 이어진다고 본다(김은경·김경희, 2018). 이는 Grootaert and van Bastelaer(2001)가 강조하는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미시적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은 사회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에서 시작하는데,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은 구성원들 간의 호혜성을 이루게 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적 신뢰가 사회적 관계의 사회적 신뢰로 전환된다고 본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확장은 사회적 연결망, 즉 네트워크가 되는데, 사회적 네트워크는 집합적 행동을 하는 실체를 형성하며, 집단 내의 공동 선(collective goods)을 추구하여 사회적 연결망에 참여한 사람의 집합적 이익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즉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결사체나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으로 사회적 신뢰가 구축된다. 이러한 미시적 차원에서 형성된 사회적 신뢰가 축적되면서, 결과적으로 제도적 신뢰, 공적 신뢰, 일반화된 신뢰와 신뢰 문화의 영역, 즉 거시적 차원으로 확장된다(Grootaert and van Bastelaer, 2001).

〈표 1〉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연구자	구성요인	공통요인
Bourdieu (1985)	- 제도화된 관계의 연결망	신뢰, 네트워크, 사회적 규범
Coleman (1990)	- 의무, 기대, 신뢰, 규범, 제재, 네트워크	
Woolcock (1998)	- 연결망, 신뢰, 협력	
Putnam (2000)	- 네트워크, 규범, 신뢰, 참여	
Krishna (2000)	- 신뢰, 협력	
박종주(2005)	- 사회참여, 신뢰, 규범(상호부조), 지역연결망	
임승빈·이승중(2005)	- 규범, 신뢰, 네트워크, 공식적 비공식적 가치관, 자발적 협력, 참여, 공동체 활동의 축적	
삼성경제연구소(2009)	-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사회구조	
조권중(2010)	- 신뢰, 규범, 네트워크, 참여, 사회구조	
김성연·이영환·박윤제(2010)	- 방법적 요소: 신뢰, 규범, 네트워크 - 실천적 요소: 참여, 협상, 중재/조정	
김성태(2012)	- 네트워크, 신뢰, 참여, 규범	

자료: 이란희·최병대(2014)를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

국내에서도 다양한 학자들이 사회적 자본의 개념이나 핵심요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앞서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소로 강조된 신뢰, 네트워크, 규범 이외에도 사회참여를 강조

하는 연구(박종주, 2005; 김성태, 2012)나, 사회구조를 중요한 구성요인으로 보는 연구(조권중, 2010; 삼성경제연구소, 2009)도 있다. 또한 김성연·이영환·박윤재(2010)의 연구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실천요소로 참여, 협상, 중재/조정 등이 중요함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사회참여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사회구조가 사람들 사이의 연계망을 형성하고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사회적 자본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변화나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 변화에 의해 조정될 수 있는 자원(엄창욱·박상우, 2011: 141)이며,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 즉 연결망을 만들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정책적 차원에서 필요함을 의미한다(이인자, 2011: 29).

3. 사회적 연결망과 공공정책의 역할

기존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이 축적됨으로써 국가 혹은 지역사회 단위의 긍정적인 변화를 창출할 수 있음에 초점을 두었다. 대표적으로 Putnam(2000)의 연구는 각 국가별 사회적 자본의 수준에 따라 경제적인 성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적 자본이 미국 내에서의 공중 보건이나 범죄율의 감소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빈곤이나 불평등의 문제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으며(Light, 2004; 김혜연 2011 재인용),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된다(Rydin and Holman, 2004).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형성하고 축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도 논의의 큰 축이다. 특히 기존 선행연구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자발적 결사체나 비영리 조직의 역할에 초점을 두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부나 공공정책의 수준에서 사회적 연결망을 증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접근이 무엇인가, 즉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 정부와 공공정책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들로 이어졌다(Lowndes and Wilson, 2001; Maloney et al., 2000; PRI, 2005). 대표적으로 Newton(1999)는 Putnam이 시민사회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상향적 편향(bottom-up bias)' 성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사회적 자본은 정부의 공공정책이나 구조 자체와도 밀접한 영향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정부의 공공 정책은 자발적 시민활동이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condition)을 형성하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민권, 교육, 지역 공동체 내 다양한 시설의 공급, 공공 장소

(public places)의 디자인, 빈곤 및 사회 배제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정부 내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책임성 등은 모두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Lowndes and Wilson(2001)은 지역 거버넌스의 제도적 설계(institutional design)가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세부적인 요인으로는 비영리부문(voluntary sector)와의 관계, 시민의 참여 기회, 정책 결정의 책임성, 그리고 민주적 리더십과 사회 통합을 위한 조정장치 등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캐나다의 정책연구기관인 PRI(2005)는 공공정책이 직·간접적으로 사회적 연결망이 형성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대중교통이나 주택, 육아휴직과 교육, 육아 및 여가시설 등에 대한 정책결정은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데 포괄적이면서도 간접적인(broad but indirect) 영향을 미친다.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들은 지역 내 사회적 연결망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활동에 초점을 두는데, 이는 개인적 또는 공동체 전체적인 역량 증진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증거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공공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전달, 평가(policy and program development, delivery, and evaluation)에 있어 사회적 자본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적 연결망과 사회적 자본이 시민사회나 비영리부문의 활동에 기반하여 자생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여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정부와 공공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쌍방향적 관계(a two-way relationship)를 갖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Lowndes and Wilson(2001)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에 Lowndes and Pratchett(2008)은 사회적 자본을 위한 공공정책은 수준별로 다른 접근 방식이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는데, 사회적 자본의 기제에서 미시-거시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수준, 지역 공동체 수준, 도시/국가 수준으로 구분하여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개인적 수준에서는 사회적 관계에서 개인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하는 정책의 고려가 필요하다면, 공동체 수준에서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이웃관계 등을 포함하여 지역적인 자원을 육성하는 것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고, 도시/국가수준에서는 신뢰와 규범 등 사회적 자본의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세계 각국의 공공정책 추진 방향성 설정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영국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orum(2003)은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해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 평생학습, 공간계획을 포괄하는 공공정책을 통해 사회적 자본의 증진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호주(Commonwealth of Australia, 2003)의 경우에도 사회적 자본 형성이라는 근본적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범위를 점차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교육, 복지, 가정지원, 커뮤니티 서비스, 스포츠, 예술 및 기타 필수 서비스 등의 정부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발전이라는 목적성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사회 정책 영역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생애 전환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다양한 주체(공공, 민간, 시민사회)의 협력 및 네트워킹을 통한 커뮤니티 개발 정책의 3대 영역을 분명히 설정하고 있다. OECD는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해서는 가족정책, 자발적 참여 지원 정책, 민주적 의사결정 지향적 정부 정책 과정,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보건과 지역사회 연계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과 공공정책의 역할을 인지하고, 다양한 공공정책의 부문계획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증진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사회적 자본의 증진은 다양한 공공정책의 부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한 부문의 정책으로만 그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연결망을 포괄하는 사회적 자본 증진은 다양한 정책부문이 결합된 종합적 성과로 이해해야하며, 이들 정책부문간 연계·협력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효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4. 사회적 연결망 영향요인

그동안 사회적 자본 그 자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행되어 온 편이다. 사회적 자본은 개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의 영향효과에 대한 연구가 한 축을 이룬다. 한편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 즉 연계망을 기반으로 형성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데(Bullen and Onyx, 1998), 이러한 관계망은 지역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리적 공간의 특성이 개인의 행태와 상호작용, 관계망의 형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의 영향요인과 함께 지역·환경적 차원의 영향요인 역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다소 추상적인 사회적 자본의 구체적 구성요소로 정의할 수 있는 사회적 연계망, 신뢰, 규범, 참여 등을 형성시키는 요인이나 특성에 대한 직접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이다. 일부 연구에서 신뢰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요인으로 개인적 혹은 지역적 특성을 분석했으나,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사회적 연계망을 증진시키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참여, 신뢰, 규범 등의 사회적 자본에 속한 요소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고, 개인의 성격에 영향을 주거나 네트워크를 확산시킬 수 있는 외부적 환경

에 대한 연구를 찾기는 힘들다.

1) 개인적 차원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연결망을 포함한 사회자본의 형성에 있어 개인적 차원의 요인으로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결혼 유무 등의 영향효과를 실증하고 있다(Putnam, 2000; 박희봉·김명환, 2001; 천현숙, 2004; 백명자, 2006). 사회자본 논의를 이끌었던 Putnam(2000)의 초기 연구에서, 개개인의 시민활동 또는 지역사회 공식 활동의 참여에는 인종과 교육이 주목할 만한 결정요인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대도시 아파트 주거단지를 연구한 천현숙(2004)은 2001년 서울, 분당, 청주의 자료를 기반으로 가구주 연령이 한 살 증가할 때마다 사회적 자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약 0.06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거주기간,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대신 가족을 구성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회적 자본은 약 1.67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친밀도, 참여도, 공동체의식, 그리고 신뢰도 등 4개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했는데,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함께 거주하는 주민간의 친밀도, 공동체의식 그리고 신뢰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사회적 자본의 대부분의 요소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참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아파트 주민과의 친밀도 및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을 구성한 경우 참여도와 공동체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주민들과의 친밀도는 오히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참여도, 공동체의식, 신뢰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봉·김명환(2001) 역시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에 대한 전반적 신뢰, 관계 집단 내 협력, 정보공유 수준 등이 높으며, 여성보다 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비슷하게 백명자(2006)의 연구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이 높음을 분석하고 있으며, 박선희·박병현(2012)의 연구에서는 결혼유무와 성별(남성의 경우 높은 유의미하게 높은 네트워크 형성)이 네트워크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최선미(2017)의 연구에서는 고령자들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영향요인으로 소득수준에 주목하고 있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사회적 연결망 형성의 경로가 다르게 형성될 수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즉 부유한 고령자일수록 비공식적 친목모임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반면,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낮아 공식 네트워크에의 참여에는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고령자들의 경우 복지관 등의 공공시설 및 프로

그램을 통해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 고령자들이 자주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 및 공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해 심리적 지지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2) 지역 환경적 차원

지역의 물리적·공간적 요인이 사회적 연결망 및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 역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데, 관련 연구들은 주거나 보행환경의 질, 문화환경, 거주지역의 안전,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사회적 연결망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Putnam(2001)은 자동차 중심의 생활양식이 사람들 사이의 접촉기회를 감소시키고 사회적 교류를 단절시켜 결과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자동차의 이용을 줄이고 보행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중교통 시설의 공급 및 접근성의 향상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들도 등장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Roberts(2007)는 낯선 사람들과 우연히 마주칠 수 있는 지역 환경은 간단한 인사나누기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관찰할 기회를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결속력을 증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선희 외(2008)는 보행 친화적 환경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높게 나타났으며, 공원면적이 높은 지역의 주민 역시 사회적 참여에 적극적임을 증명하였다. 최근 조혜민·이수기(2016; 2017)의 연구 역시 지역 공간의 물리적 환경, 즉 보행활동, 대중교통 접근성, 공원·하천 접근성이 사회적 자본과 유의미한 영향관계에 대해 실증하였다. 대중교통 접근성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즉 복지관이나 문화시설에의 접근성 역시 사회적 연결망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선미(2017)는 지역사회 복지시설에의 접근성이 사회적 연결망 형성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고은정(2018)의 연구 역시 지역 사회 내 다양한 시설에의 접근성을 포함하여 지역 거주환경의 만족도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지역 거주환경의 안전 요인도 사회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다수를 차지한다. 곽현근(2003)은 지역사회 차원의 인지된 무질서(perceived neighborhood disorder) 수준과 취약동네(neighborhood disadvantage)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지역 사회 내 질서와 사회적 통제가 부재하다는 인지된 무질서 수준은 사회적 자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김영제·한상일(2008) 역시 지역사회 무질서와 범죄두려움이 사회적자본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지역주민이 인지하는 지역 환경의 안전성은 주민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수준 자체의 영향에 대한 연구도 있다(Pettit and McLanaha, 2003; 천현숙, 2004, 박선희·박병현, 2012 재인용). 흔히 중산층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적·교육적·경제적 자원을 많이 제공하며,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를 구축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사회·경제적 자원의 부족이나 사회적 차별 등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Jencks and Mauor, 1990; 천현숙·윤정숙, 2001; 박선희·박병현, 2012 재인용), 이러한 논의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 자체가 개개인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단위에서 사회적 연결망 증진에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지역 공동체 관련 사업이나 활동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에서 시작하며, 나아가 지자체 단위에서 기존의 닫힌 정책결정 시스템을 오픈하고 시민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연구도 있다(Rohe, 2007). 이러한 연구는 공동체 활동 또는 지역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참여가 사회적 연결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임을 강조한다.

〈표 2〉 사회적 연결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차원	세부 요인	선행연구
개인 차원	연령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이 높음 (박희봉·김명환, 2001; 천현숙, 2004; 백명자, 2006)
	성별	성별에 따라 사회적 자본 형성이 다른데, 남성의 경우 공식적 관계망 형성이 활성화(박희봉·김명환, 2001, 박선희·박병현, 2012)
	결혼 여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사회적 연결망의 수 증가(박선희·박병현, 2012)
	교육 수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이 높음 (Putnam, 2000; 백명자, 2006)
	소득 수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이 높음(백명자, 2006) 소득 수준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 형성 경로가 다름(최선미, 2017)
	사회 참여	사회 참여가 많을수록 사회적 연결망의 수 증가(김영옥·권해수, 2011; 장유미, 2011; 박혜영·김정주, 2012)
지역 환경 차원	보행 환경	보행환경이 사회적 관계망 및 사회적 자본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Putnam, 2000; 김선희 외, 2008; 조혜민·이수기, 2016;2017)
	거주환경 안전성	거주 지역의 안전성(무질서 및 취약성)은 사회적 자본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곽현근, 2003; 김영제·한상일, 2008)
	복지 및 문화시설 접근성	지역 복지 및 문화시설 접근성은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김선희 외, 2008; 최선미, 2017; 고은정, 2018)
	지역 사회경제적 수준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사회적 관계망 및 사회적 자본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Jencks and Mauor, 1990; Pettit and McLanaha, 2003; 천현숙·윤정숙, 2001, 천현숙, 2004, 박선희·박병현, 2012)

Ⅲ.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1. 사회적 연결망의 조작적 정의

다양한 개념의 사회적 연결망 정의가 있지만 서울서베이(2017)³⁾의 설문조사 항목을 활용하여 OECD 국가 간 비교 지표로 활용되는 BLI 지표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회적 연결망을 정의하고, 이렇게 정의된 사회적 연결망에 어떤 정책 변수가 영향을 주는지에 본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BLI에서 정의한 지원관계망의 질(quality of support network, %)은 개별 표본(sample)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지역별 혹은 국가별 비율이다. 본 연구는 서울서베이 조사항목을 검토한 결과, (1)목돈 필요시 차입이 가능한 사람, (2)몸이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3)우울할 때 대화 가능한 사람 등의 존재여부에 관한 문항⁴⁾을 확인하였고, 이들 세 경우 모두 1명 이상 존재하는 경우를 1, 그 이외를 0으로 간주하되, 그 전체에서 1의 비율을 사회적 연결망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본 연구는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연구로, 금전적, 물리적 및 정신적 도움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문별 중첩성을 반영한 반면, 각 부문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밀도)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의는 본 연구의 핵심인 사회적 연결망에 영향을 주는 정책요인 분석과 관련이 있는데, 다각적 측면의 사회적 연결망이 모두 충족하기 위한 충분조건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재 OECD 국가 중 한국이 사회적 연결망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국가에 속하는 현실과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는데 보통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반영하면 다

3) 서울서베이는 2003년 1월 처음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3년 11월 처음 조사를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매년 4분기에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2017년 조사의 경우, 가구 방문면접조사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동안 조사하고, 보완 조사를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수행했다. 서울시민의 주민등록과 과세대장 데이터를 연계하여 주택유형별 세대수(2017년 기준 4,217,954세대)를 파악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대주 및 만 15세 이상(8,769,117명 중 일부를 제외한 8,648,166명을 모집단으로 정의)을 확인하여, 구(1단계), 동(2단계), 주택유형(3단계)으로 구분한 세대단위 층화표본 방식으로 추출했으며, 표본 크기는 20,000가구이며, 만15세 이상 가구원 42,687명으로 가구 및 가구원 기준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pm 0.69\%$ 과 $\pm 0.47\%$ 이다.

4) 2017년 가구원용 설문 중 사회연결망에 해당하는 5번 문항에 다음과 같은 설문 내용이 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이 있습니까? 1) 몸이 아플 때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 ① 있다 ② 없다, 2) 갑자기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 줄 사람: ① 있다 ② 없다, 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할 사람: ① 있다 ② 없다.”

소 엄격한 목표치이다. 본 연구는 이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정책 요인이 영향을 주는지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사회적 연결망의 세부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가적으로 분석했다. 즉, 사회적 연결망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정책지표가 목돈 차입 가능 여부, 아플 때 도움 가능 여부, 우울할 때 대화 가능 여부 등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후반부에 추가했다.

2. 분석범위, 변수정의 및 분석모형

1) 분석범위

본 연구는 정부의 다양한 공공정책들 중 어떤 요인이 사회적 연결망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여러 정책 간의 상대적 영향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 여러 공공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설문문항을 가진 서울서베이(2017) 자료를 활용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했다. 비록 공간적 범위가 서울로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지만, 앞서 소개한 세 변수로 매년 OECD의 BLI에서 공표하는 사회적 연결망과 유사한 개념 정의가 가능하다. 사회적 연결망 이외에 서울시민의 개별 특성, 가구 특성 그리고 지역 특성과 연계될 수 있는 여러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서베이를 제외한 대다수 정부지정 공식 조사들은 신뢰, 네트워크의 강도, 규범, 참여 등 사회적 자본에 그 자체(endogenous elements)에 초점을 둔 문항은 많지만, 정작 이러한 사회적 자본과 연계될 수 있는 거주 및 보행 환경, 복지 및 문화시설 등 외생적 요소(exogenous elements)에 대한 문항은 찾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는 가장 최근에 공개된 2017년 기준 자료이며, 2010년 이후 과년도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연결망 지표값은 평균 약 0.6(표본의 60% 정도가 주변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함)으로 2017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대표성을 가진 자료로 볼 수 있다.

2) 분석에 활용한 변수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서울서베이(2017)의 각 설문 문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연결망 형성과 연계될 수 있는 주요 공공정책 부문 분석에 부합하는 측정지표를 도출하였다(〈표 3〉참조). 앞서 사회적 연결망 영향 요인에 대한 다수의 실증적 선행연구들은 크게 개인 차원과 지역환경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개인 차원과 공공정책 차원의 두 부문으로 구분했다. 개인 차원에서는 성별, 연령, 가구원 수, 가구소득,

결혼여부 및 장애 여부를 포함하는 인구 사회적 특성과, 가족·이웃·정부·사회전반에 대한 개인별 신뢰의 정도를 포함하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외에 각 사회적 혹은 개인적 신뢰 정도가 사회적 연결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존 연구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지역·환경적 차원은 외생적 요소로 보통 공공정책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지역환경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공정책 부문의 측면에서 크게 경제(소득/일자리), 교육, 문화·복지, 안전, 거주환경, 사회참여의 6개 부문으로 유형화하였다. 경제적 수준의 경우 사회적 연결망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지역사회 경제적 수준 지표로서 소득수준이 높은 3개 자치구(강남, 서초, 송파)와 소득수준이 낮은 3개 자치구(동대문구, 관악구, 노원구)를 고려하였다. 한편, 현 위치에 거주한 기간을 추가하여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사회적 연결망에 미친 영향도 함께 분석하였다. 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이웃과의 친밀도가 높아져 사회적 연결망이 커질 수 있다는 가설을 기반으로 소단위 지역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확인하고자 함이다. 기타 각 변수의 정의와 선정이유에 대한 논의는 기술통계 결과 값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술하고자 한다.

〈표 3〉 주요 측정 지표

구분		세부문항	서울서베이(2017) 원자료*	변수 형태	
종속변수	사회적 연결망	• 목돈 차입 가능 여부	가구원: 문 5-2	더미	
		• 아플 때 도움 가능 여부	가구원: 문 5-1	더미	
		• 우울할 때 대화 가능 여부	가구원: 문 5-3	더미	
독립 변수	소지역 단위 정책	• 현 위치 거주기간 (단위: 년)	가구: 응답가구특성문항 DQ2B ¹⁾	연속	
		경제 (소득/일자리)	• 고소득 자치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가구: 자치구 정보 ²⁾	더미
			• 저소득 자치구: 동대문구, 관악구, 노원구	가구: 자치구 정보 ²⁾	더미
	교육	• 교육 수준	가구원: DQ1 ³⁾	7단계 구분	
	문화·복지	• 문화 환경 만족도	가구원: 문 48 ⁴⁾	5점 척도	
		안전	• 체감 안전 만족도	가구원: 문 9-4 ⁵⁾	10점 척도
	거주환경	• 지역 생활환경 만족도	가구원: 문 9-8 ⁶⁾	10점 척도	
		• 보행환경 만족도	가구원: 문 49-1 ⁷⁾	5점 척도	
	사회 참여	• 단체활동 참여	가구원: 문 4 ⁸⁾	더미	
		• 자원봉사 참여	가구원: 문15 ⁹⁾	더미	
		• 마을만들기 등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	가구원: 문19-4 ¹⁰⁾	더미	
		• 지역모임 참여	가구원: 문 4-3 ¹¹⁾	더미	
		• 시민단체 참여	가구원: 문 4-7 ¹¹⁾	더미	
	개인 차원	인구사회적 특성	• (응답자) 성별 (남성: 1, 여성: 0)	가구: 가구원 정보 중 성별	더미
			• (응답자) 연령	가구: 가구원 정보 중 출생연도	연속

구분		세부문항	서울서베이(2017) 원자료*	변수 형태	
		• 가구원 수	가구: 가구원 정보	연속	
		• 월별 가구소득 수준 (단위: 천만원)	가구: 응답가구특성문항 DQ1	연속변수화**	
		• 결혼 여부 (기혼: 1, 비혼: 0)	가구: 가구원 정보 중 혼인상태	더미	
		• 장애 여부 (장애인: 1, 일반인: 0)	가구: 가구원 정보 중 등록장애여부	더미	
	개인 특성	• 종합적 신뢰 정도			
		사회적 신뢰	- 가족 신뢰 정도	가구원: 문 7-1 ¹²⁾	4점 척도
			- 이웃 신뢰 정도	가구원: 문 7-2 ¹²⁾	5점 척도
		개인적 신뢰	- 정부 신뢰 정도	가구원: 문 7-3 ¹²⁾	5점 척도
			- 사회전반 신뢰 정도	가구원: 문 6 ¹³⁾	5점 척도

* 앞서 소개한 설문문항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항목을 제외한 변수에 대해 서울서베이(2017) 원자료(가구원) 문항은 아래와 같음.

- 1) DQ2-B. 귀하께서 현재 사는 집 거주기간을 말씀해주십시오(이사로 인한 타지역 거주기간은 제외). 약 _____ 년.
- 2) 서울서베이(2017) 기준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가장 낮은 세 자치구(동대문구, 관악구, 노원구)를 각각 1로, 그 이외 지역을 참조집단(0)으로 둔 더미변수로 정의함.
- 3) DQ1. 귀하의 학력은 ... ? ① 안 받았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전문대, ⑥ 대학, ⑦ 대학원.
- 4) 문 48. ... 서울의 전반적인 문화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 5) 문 9-4. 귀하께서 체감하는 안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혀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 사이 10점 척도)
- 6) 문 9-8. 귀하께서 살고계신 지역의 생활환경의 질에는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상동, 10점 척도)
- 7) 문 49-1. 귀하의 주거지역 인근에서 걸어다니기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우신지요? (매우 불만족에서 매우 만족사이 5점 척도)
- 8) 문 4.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 단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9) 문 15. 귀하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10) 문 19-4.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마을만들기, ... 등 서울시 정책관련 사업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11) 문 4.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4-3] 지역모임... / [4-7] 시민단체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12) 문 6. 귀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항상 조심해야 한다. ② 대체로 조심해야 한다. ③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④ 항상 신뢰할 수 있다.
- 13) 문 7.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 1) 가족, 2) 이웃, 3) 공공기관 (서울시 등) ① 전혀 신뢰 안함, ② 별로 신뢰 안함, ③ 보통, ④ 약간 신뢰, ⑤ 매우 신뢰.

** 귀하의 1년(2016.9.1.-2017.8.31.)동안 세금납부(공제) 전 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은 얼마입니까? (금융소득은 제외)의 질문은

- ① 50만원 미만, ② 50-100만원 미만, ③ 100-150만원 미만, ... (50만원 단위로 구분)..., ⑩ 850만원 -900만원 미만, ⑪ 900만원 이상 등 19개 선택지의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항목의 중위값으로 변환하고, 단위를 1,000만원으로 변환한 값을 사용함.

3)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연결망 지표에 영향을 준 요인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분석하기 위해 로짓(binary logit) 모형을 활용한다. 로짓 분석은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의 일종으로 종속변수가 명목(nominal) 변수일 경우 사용하는 모형이다. 잔차 분포 가정을 일반 선형에서 로짓분포($=\frac{1}{1+e^{-\theta}}=\frac{e^{\theta}}{1+e^{\theta}}$)로 변환한 치환모형으로, 독립변수인 관측치 X의 변화에 따라 종속변수가 0 혹은 1의 선택 확률로 적합(fitting)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결과 해석에 있어 오즈비(odds ratio)는 실패확률 대비 성공확률($\frac{p}{1-p}$)을 의미하며, 계수값(β)의 지수값이 곧 오즈비이다. 사회적 연결망이 1일 확률을 추정하는 본 연구의 모형식은 아래와 같다.

$$prob(y|x) = \frac{e^{\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dots + \beta_n X_n}}{1 + e^{\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dots + \beta_n X_n}} = \frac{e^{\sum_{k=1}^K \beta_k X_k}}{1 + e^{\sum_{k=1}^K \beta_k X_k}},$$

$$\text{Let, } L(x) = \frac{e^x}{1 + e^x}, \quad prob(y = 1|x_k) = 1 - L\left(-\sum_{k=1}^K \hat{\beta}_k X_k\right) = L\left(\sum_{k=1}^K \hat{\beta}_k X_k\right) = \frac{e^{\sum_{k=1}^K \hat{\beta}_k X_k}}{1 + e^{\sum_{k=1}^K \hat{\beta}_k X_k}} \text{ 이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독립변수를 이용하므로 두 변수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효과를 제어한 상태(ceteris paribus)에서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계효과의 의미는 독립변수로 고려한 여러 요소 중 해석하는 변수 이외의 변수는 각 변수의 평균값 수준으로 통제된 상태에서 해당 변수만 증가시켰을 때 종속변수에 미치는 부분 영향(partial coefficient) 정도를 의미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frac{\partial prob(y = 1|x_k)}{\partial x_k} = P(1 - P)\hat{\beta}_k, \quad \text{단, } P = prob(y = 1|x_k).$$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개인적 차원의 가구주 성별, 연령, 가구원수, 가구 소득, 결혼여부, 등과 함께 사회적/개인적 신뢰가 사회적 연결망에 미친 효과를 분석했다. 지

역 환경적 차원에서 지역단위(자치구) 경제수준, 교육수준, 문화(culture), 안전(safety), 지역 생활(amenity), 보행(walkability)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였고, 사회참여 정도도 함께 추가하여 개인적 요인을 통제할 경우 다양한 지역정책에 대한 사회적 연결망 증대의 한계 효과를 검토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정규화 계수(standardized coefficient)를 활용하여 연결망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생변수들 간 상대적 영향력 크기 비교한다. 정규화 계수는 일반 계수에 각 독립변수의 표준편차를 종속변수의 표준편차로 나눈 값을 곱한 지표로 각 독립변수의 표준편차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종속변수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다양한 독립변수들의 측정단위가 다른 경우 상대적 영향력 차이를 객관화시켜 비교할 때 효과적인 방법이다. 주로 일반회귀분석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로짓모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IV. 분석 결과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종속변수로 활용한 사회적 연결망 지표(표 4)를 살펴보면, 사회적 연결망이 존재하는 비율은 약 62%로, OECD(2017)가 국가 간 비교지표로 발표한 BLI의 연결망지수가 76%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결과 값이 낮은 다른 원인을 추정하면, 서울서베이 분석이 전국이 아닌 서울만을 대상으로 산정했기 때문일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결망 지표는 상대적으로 주변의 도움 혹은 지지를 받을 확률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일 수 있다. 즉, BLI 지표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단일 설문으로 질문하여 연결망지수로 정의한 것에 반해, 본 연구는 서울서베이는 그 '어려움'을 금전적, 정신적, 물리적 요인으로 세분화하여 질문한 결과 모두 도움이 가능한 경우(교집합)로 산정했기 때문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물리적 도움, 즉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약84%)가 가장 많았고, 우울할 때 대화할 상대가 존재하는 정신적 도움 가능성(약78%)이나 목돈을 빌릴 수 있는 금전적 도움 가능성(약65%) 순으로, 세 경우 대략의 평균값이 오히려 BLI 값과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양한 연결망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한 이유는 세 경우 중 하나라도 어려움이 있는 시민 모두를 잠재적 공공정책 대상자로 보기 때문이다.

〈표 4〉 사회적 연결망 지표*와 관련 변수 (서울서베이, 2017)

구분	연결망 지표*		(1) 목돈 차입 가능		(2) 아플 때 도움 가능		(3) 우울시 대화 가능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있음 = 1	26,289	61.6	27,874	65.3	35,729	83.7	33,165	77.7
없음 = 0	16,398	38.4	14,813	34.7	6,958	16.3	9,522	22.3
총합	42,687	100	42,687	100	42,687	100	42,687	100

사회적 연결망과 이를 구성하는 금전적, 정신적, 물리적 요인을 포함하여, 사회적 연결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량은 다음 〈표 5〉로 정리했다. 먼저 공공정책과 관련된 변수들을 살펴보면, 서울시민은 평균적으로 약 9년 조금 못 미치는 기간동안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응답자간 표준편차가 평균치에 가까워 상대적으로 분산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거주기간의 중위값은 6년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르는 일부에 의해 평균거주기간이 높아졌으나 대다수 시민은 보통 약 6년 정도 머무른다고 추정할 수 있다. 지역단위 소득차이가 사회적 연결망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구소득의 자치구별 평균값을 구하여 상·하위 3개구로 구분하고 각각의 세 자치구를 제외한 19개 자치구를 참조집단으로 만들었다. 서울서베이는 층화표본방식(1단계에서 자치구별 동일 비율로 표본수를 정함)을 채택했기 때문에 지역단위 소득수준 변수 간 기술통계상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

교육수준 변수는 응답자 개인의 교육수준에 대한 것으로 〈표 3〉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수준부터 대학원까지 7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물론 교육의 단계별 효과가 연결망에 비선형(non-linear)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사회적 자본이나 신뢰를 종속변수로 하는 기존 연구들도 교육수준을 교육연수로 재가공하거나 본 연구처럼 서열변수를 연속변수로 가정하여 선형관계로 분석(김태룡, 2006; 김영옥·권해수, 2011; 정현·전희정, 2019; 차재권·류태진, 2017; 천현숙, 2004; 최선미, 2009)한 경우가 많아, 본 연구에서도 선형으로 가정했다. 서울시민의 경우 평균 및 중위 값으로 보면 ⑤전문대 수준 정도로 볼 수 있다. 가구원 개인 변수를 공공정책 차원에서 논의하는 이유는 교육 차이를 단순히 개인 간 특성 혹은 차이로 볼 수도 있지만, 연결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밝힌 것처럼, 지역 환경 차원에서 근린의 특성이 사회적 자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최근 연구의 한 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문화 환경, 안전, 지역의 일반적인 생활환경(amenity), 그리고 보행환경 만족도에 관한 변수를 고려했다. 기술통계에 따르면, 모두 평균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화만족도의 경우, 5점 척도에서 평균 3점 이상으로 나타나 절대적으로는 만족도가 높지만,

안전, 생활환경, 보행 등의 기타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단위 면적 당 문화시설 수가 서울이 가장 많다고 다양하지만, 문화에 대한 기대치 또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나머지 안전, 생활환경, 보행에 대한 만족도는 중위값으로 보면 10점 만점에 8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서울시민들은 만족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 참여를 공공정책차원의 주요 요소로 가정하였다. 다수의 기존 연구에서 연결망과 함께 사회 참여도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설명하고 있으며, 사회적 참여는 사회적 연결망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태룡(2006)은 시민단체가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성별, 연령, 소득, 학력, 지역 등을 통제했을 때, 시민단체 회원과 종사자가 시민단체와 무관한 사람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사회적 자본이 높다는 것을 실증했다. 김영옥·권해수(2011)는 회귀분석을 통해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빈도가 높고 참여기간이 길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사회적 연결망(네트워크)이 강화되지만, 호혜적 규범, 기관 신뢰(사회적 신뢰)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신 경로분석을 통해 네트워크가 호혜적 규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며, 다시 호혜적 규범이 대인신뢰와 기관신뢰를 이끌어 냄을 실증했다. 김우락·구자훈(2011) 또한 주거지 정비사업이라는 사업의 참여 및 참여 과정을 통해 형성된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구축이 신뢰, 참여, 네트워크로 설명되는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구조분석모형을 통해 증명했다.

이러한 기존 연구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참여가 공공정책 차원에서 연결망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을 세웠다. 서울서베이(2017)에는 사회참여와 관련하여 단체활동, 자원봉사, 정부주도 사업, 지역모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문항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 측면을 고려하여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활용하여 하나의 값(제1요인)으로 요약했다. 요약된 사회참여 변수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보면, 단체활동에 참여한 경험은 서울 시민 대다수인 약 83%가 있다고 대답했으나, 자원봉사, 지역모임, 시민단체 활동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하며 각각의 평균값에 비해 표준편차가 매우 큰 특성을 보인다. 요약된 사회참여 변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가 각각 0과 1인 이유는 주성분분석을 통해 추출할 때 수식 상 정규분포가 되기 때문이다.

〈표 5〉 분석에 활용한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명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위값	최대값
사회적 연결망 지표[†]						
	social network	0.616	0.486	0	1	1
a)	목돈 차입 가능 여부 mony borrowability	0.653	0.476	0	1	1
b)	아플 때 도움 가능 여부 help when sick	0.837	0.369	0	1	1
c)	우울할 때 대화 가능 여부 conv. when dep.	0.777	0.416	0	1	1
공공정책 차원						
	현 위치 거주기간(단위: 년) residence duration	8.786	7.923	1	6	73
	소득수준이 낮은 3개 자치구 gu_poor	0.133	0.339	0	0	1
	소득수준이 높은 3개 자치구 gu_rich	0.137	0.344	0	0	1
	교육수준** education	4.722	1.247	1	5	7
	문화 환경 만족도 culture env.	3.282	0.815	1	3	5
	체감 안전 만족도 safety env.	3.434	0.914	1	4	5
	지역 생활환경 만족도 amenity	6.979	1.622	0	8	10
	보행환경 만족도 walkability	3.457	0.799	1	4	5
사회 참여¹⁾						
	s.participation	0.000	1.000	-2.379	0.420	2.347
a)	단체활동 참여 general participation	0.827	0.378	0	1	1
b)	자원봉사 참여 voluntary work	0.132	0.339	0	0	1
c)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 community building	0.850	0.357	0	1	1
d)	지역모임 참여 neighbor. association	0.111	0.314	0	0	1
e)	시민단체 참여 NGO	0.005	0.068	0	0	1
개인 차원						
	(응답자) 성별(남: 1, 여: 0) sex	0.477	0.499	0	0	1
	(응답자) 연령 age	47.804	17.071	15	48	97
	가구원 수 # fmlly mb.	2.652	1.015	1	2	7
	월별 가구소득(단위: 천만원)** mthly. income	0.439	0.201	0.025	0.425	1.000
	결혼 여부(기혼: 1, 비혼: 0) mry dum.	0.659	0.474	0	1	1
	장애 여부(장애인:1, 일반인:0) disability dummy	0.020	0.139	0	0	1
종합적 신뢰²⁾						
	total trust	0.000	1.000	-4.055	-0.060	2.729
A.	개인적 신뢰 individual trust	0.000	1.000	-2.908	0.209	2.605
	a) 이웃 신뢰 trust_nbr	3.205	0.847	1	3	5
	b) 가족 신뢰 trust_fmly	4.458	0.533	1	4	5
B.	사회적 신뢰 public trust	0.000	1.000	-5.858	0.052	2.022
	c) 사회전반 신뢰 trust_overall	2.611	0.809	1	3	4
	d) 정부 신뢰 trust_gov	3.080	0.858	1	3	5

* 분석자료는 서울서베이(2017)이며, 분석에 활용한 표본(Sample Size)은 가구원 표본수인 42,687임.

† 사회적 연결망 지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a) 목돈 차입 가능 여부, b) 아플 때 도움 가능 여부, c) 우울할 때 대화 가능 여부에 모두 긍정적으로 답변한 표본은 1, 그렇지 않은 표본은 0으로 조작적 정의한 값임.

† ‘사회 참여’와 ‘종합적 신뢰’ 변수는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활용하여 여러 변수를 요약한 값임.

- 1) ‘사회 참여’는 a) 단체활동 참여, b) 자원봉사 참여, c)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 d) 지역모임 참여, 및 e) 시민단체 참여를 주성분분석(PCA)의 첫 번째 요인으로 요약한 변수로, 평균은 0, 표준편차는 1을 가짐.
- 2) ‘종합적 신뢰’는 a) 이웃 신뢰, b) 가족 신뢰, c) 사회전반 신뢰, 및 d) 정부 신뢰를 주성분분석(PCA)의 첫 번째 요인으로 요약한 변수이며, 이 중 a) 이웃 및 b) 가족에 대한 신뢰만 PCA로 요약한 변수가 A. 개인적 신뢰 변수이며, c) 사회전반 및 d) 정부의 신뢰만 PCA로 요약한 변수가 B. 사회적 신뢰임. 주성분 분석으로 특정 변수들을 요약할 경우, 평균은 0이고 표준편차는 1을 가지는 변수가 됨.

** 교육 수준 변수의 경우 1:교육받지 않음, 2:초등학교 졸업, 3:중학교 졸업, 4:고등학교 졸업, 5:전문대 졸업, 6:일반대학 졸업, 7:대학원 졸업으로 정의된 변수를 연속변수로 활용함.

*** (월별 가구) 소득 수준의 단위는 1,000만원임.

한편 개인차원의 주요 변수는 앞서 언급한 공공정책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개인차원의 분산을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술통계 결과치에서 선행적으로 검토한 것이며, 회귀분석이나 로짓분석과 같은 인과관계 분석에서 개인차원의 변인을 빼고 정책변수만으로 분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누락변수 편의(omitted variable bias)를 막기 위함이다. 만약 개인변수를 누락하고 로짓분석을 하면, 정책효과에 대한 계수값(β)이 과다 및 과소 추정(under- or over-estimation)되는 편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차원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연구 가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더라도 개인별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를 통제변수로 추가해야 한다. 서울서베이 응답자 성별은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하나 여자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 연령은 평균 및 중위수 기준 48세 정도이다. 물론 성별과 연령을 개인차원으로 넣은 주요 목적이 통제변인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나, 다수의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적 자본이 낮은 경향이 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연결망이 증가하나 고령층은 오히려 연결망이 감소하여 사회적 배제가 우려된다(김주연, 2017; 이성은, 2005; 최민정, 2015; 최선미, 2017). 본 연구도 이러한 측면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민의 경우, 가구원 수는 평균 약 2.5명을 조금 넘지만 중위수 기준 두 명으로 확인되어 표준편차를 반영하면 1인가구와 3인 가구 사이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 기준 월별 가구소득은 평균 439만원, 중위값 기준 425만원이다. 응답자 평균값 기준 약 65.9%가 결혼을 한 상태이며, 전체 응답자 중 약 2%가 장애인이다. 장애인 더미변수를 검토한 이유는 일반인에 비해 장애인이 연결망에 더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신뢰 변수를 개인차원 변수로 추가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또 다른 하나가 신뢰로 다수의 연구에서 개인적(사적) 신뢰와 사회적(공적) 신뢰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가족과 이웃에 대한 신뢰로 설명되는 개인적 신뢰와 정부 신뢰와 사회 전반에 대한 일반적 신뢰를 포함한 사회적 신뢰를 구분하였으며, 앞서 설명한 사회 참여

변수와 유사하게 주성분분석으로 하나의 값으로 요약했다.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일부 연구에서는 사회적 신뢰와 개인적 신뢰를 합쳐 신뢰로 설명하기도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4개의 요소를 주성분분석으로 묶은 종합적 신뢰지표도 여러 인과관계 모형 중 하나에서 함께 비교한다. 네 요소에 대한 지표를 살펴보면 가족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사회전반에 대한 신뢰는 약간 낮은 경향을 띠고 있다.

2. 주요 정책 부문별 사회적 연결망 영향효과 분석 및 논의

개인적 차원의 성별, 연령, 가구원수, 소득 등 여러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 다수의 공공정책 효과가 사회적 연결망 지표 증가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로짓모형으로 분석한 것이 다음 <표 6>의 결과이다. 분석 결과 설명에 앞서 본 연구에서 선정한 모형이 가진 특징과 한계점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모형 간 비교에 대해 간단히 서술하고자 한다. 앞서 사회적 연결망 및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서술하며 다수의 학자가 사회적 연결망(네트워크), 참여, 규범, 호혜성 등을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본다는 점을 확인했다. 문제는 그 요소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보적 관계가 있음을 다양한 연구는 밝히고 있다(Grootaert and van Bastelaer, 2001; Putnam, 2000; 조권중, 2010). 즉, 미시적 차원에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사회적 연결망(네트워크)을 형성하고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학습을 통해 신뢰가 구축된다고 보았으며, 이렇게 구축된 거시적 차원의 사회적·제도적 신뢰는 다시 미시적 연결망의 질과 양의 증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6〉 로지분석을 통한 사회적 연결망 지표에 영향을 미친 요인 분석 (모형 I - IV) 결과

변수명	Model I [†]			Model II [†]			Model III [†]			Model IV [†]		
	Coef.	Odds.	Wald Chi ²	Coef.	Odds.	Wald Chi ²	Coef.	Odds.	Wald Chi ²	Coef.	Odds.	Wald Chi ²
절편(intercept)	-5.397		2.078***	-3.483		714.4***	-3.272		618.8***	-3.201		586.1***
공공정책자녀												
현 위치 거주기간(단위: 년)	-0.004	0.996	7.5***	-0.003	0.996	-0.012	2.9*	-0.004	0.996	-0.017	5.9**	4.9**
소득수준이 낮은 자치구	-0.029	0.972	0.8	-0.088	0.972	-0.017	6.4**	-0.114	0.892	-0.021	10.6***	14.3***
소득수준이 높은 자치구	0.086	1.090	6.4**	0.118	1.090	0.022	9.7***	0.111	1.118	0.021	8.6***	8.0***
교육 수준(edu.) ^{††}	0.077	1.080	0.053	0.099	1.080	0.068	64.9***	0.103	1.109	0.071	69.4***	63.9***
문화적 환경(culture env.)	0.540	1.717	0.243	0.273	1.717	0.123	279.5***	0.267	1.307	0.120	266.2***	239.9***
안전 측면 환경(safety env.)	0.323	1.382	0.163	0.126	1.382	0.064	88.5***	0.159	1.173	0.080	136.2***	76.8***
지역 생활 환경(amenity)	0.079	1.083	0.071	0.133	1.083	0.119	314.6***	0.112	1.118	0.100	215.8***	264.4***
보행 환경(walkability)	0.490	1.633	0.216	0.189	1.633	0.083	128.6***	0.157	1.170	0.069	87.1***	98.3***
사회 참여(s. participation)				1.276	3.583	0.704	3.620***	1.296	3.656	0.715	3.702***	3.729***
개인차원												
성별(sex) [†]	0.040	1.041	0.011	0.023	1.041	0.006	0.9	0.026	1.027	0.007	1.2	0.8
연령(age)	-0.007	0.993	-0.064	-0.008	0.993	-0.079	77.1***	-0.009	0.991	-0.087	100.9***	91.1***
가구원 수(# family mb.)	0.083	1.086	0.046	0.083	1.086	0.047	32.7***	0.074	1.077	0.042	26.6***	26.6***
월별 가구소득(mth. inc.) [†]	0.737	2.089	0.082	0.870	2.089	0.097	116.6***	0.857	2.357	0.095	112.5***	102.4***
결혼 여부(mry dum.)	0.359	1.432	0.094	0.459	1.432	0.120	276.0***	0.449	1.567	0.117	262.6***	241.6***
장애 여부(dis. dum.)	-0.075	0.928	-0.006	-0.110	0.928	-0.008	1.8	-0.116	0.890	-0.009	2.0	2.1
중합적 신뢰(coral trust)								0.232	1.261	0.128	354.3***	
개인적 신뢰(individual trust)												
사회적 신뢰(public trust)												
Model Fit Statistics^{††}												
Intercept Only				Intercept Only				Intercept Only				
56.866	50.038		56.866	43.069		56.866	42.714	56.866	42.360		56.866	42.360
56.875	50.168		56.875	43.207		56.875	42.852	56.875	42.507		56.875	42.507
56.864	50.008		56.864	43.037		56.864	42.682	56.864	42.326		56.864	42.326
	12.1%			24.3%			24.94%		25.57%			
Beta Tests (Chi² & p-value)												
LR, Score, & Wald Tests	6.856***	6.447***	5.517***	13.827***	12.365***	6.632***	14.182***	12.615***	6.804***	14.538***	12.869***	6.980***

* 분석자료는 서울서베이(2017)이며, 표본수(Sample Size)는 42,687임.

† Coef.는 계수값(β), Odds.는 Odds Ratio, S.Coef.는 정규화 계수값을 의미하며, 각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p-value: <.01, **.p-value: <.05, *.p-value: <.10으로 정의함.

†† 교육 수준 변수의 경우 1:교육받지 않음, 2:초등학교 졸업, 3:중학교 졸업, 4:고등학교 졸업, 5:전문대 졸업, 6:일반대학 졸업, 7:대학원 졸업으로 정의된 변수를 연속변수로 활용함.

‡ 명목변수인 성별의 참조집단은 여성(0)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1)에 대한 효과를 설명함; 월별 가구소득 수준의 단위는 1,000만원임.

‡‡ 모형의 적합성은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SIC (Schwarz Information Criterion) or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과 $-2 \log L$ (log-likelihood ratio)를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값이 낮을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높음을 의미함.

Pseudo-R²의 경우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McFadden (1974) 방식, 즉, $1 - (-2 \log L_1 / -2 \log L_0)$ 으로 정의함.

이를 통계적 모형으로 설명하면 신뢰나 사회 참여가 사회적 연결망 형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다른 한편 강화된 연결망이 다시 신뢰나 사회 참여에 영향을 주는 내생성(endogeneity)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보통 내생성 이슈가 있을 때, 종속변수와 무관(독립관계)하지만 종속변수와 내생성이 의심되는 변수와는 상관관계가 높은 도구변수(instrument variables)로 내생변수를 추정하고 내생변수의 적합치(fitted value)를 내생변수 대신 이용하는 2단계 회귀모형, 즉 2SLS (2 Stage Least Squares)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주는 요소, 특히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인 사회적 연결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국·내외 실증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대부분 신뢰나 참여 요소를 배제한 인과모형을 이용했고, 도구변수를 활용한 연구를 확인하지 못했다. 논리적으로도 사회적 연결망과 독립이지만 신뢰나 사회 참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수를 찾기는 어려웠다. 여러 인과관계가 얽혀있는 경우 경로 분석(Path Analysis) 혹은 구조방정식(Structure Equation) 모형으로 분석할 수도 있으나, 이 방법은 단일 종속변수에 대한 인과 관계 연구가 충분히 누적된 이후 이를 기반으로 다 요소 간 다 인과 구조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외생적 정책변수 영향 연구가 부족한 현재 상황에 바로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대신 본 연구는 단순로짓모형을 활용하여 사회적 연결망에 영향을 주는 단선적 인과관계만을 분석하되, 사회 참여나 신뢰 관련 변수를 추가하면서 그 결과 값을 서로 비교했다(〈표 6〉의 모형 I부터 모형 IV). 모형 I은 참여 및 신뢰 관련 변수를 모두 배제하고, 공공정책차원의 변수들과 개인차원 변수들만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II는 사회참여 변수를 추가했고, 모형 III은 사회참여와 종합적 신뢰를 함께 추가했고, 모형 IV는 종합적 신뢰 대신 사회적 신뢰와 개인적 신뢰를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들이다. 참여와 신뢰를 모두 추가하지 않은 모형 I의 모형 적합도(pseudo-R²)가 12% 수준으로, 다른 결과들이 약 24-26%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기타 모형에서 연결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방향성(sign)과 통계적 유의성(statistic significance)은 크게 차이나지는 않았다. 모형 I만 소득수준이 낮은 자치구에 대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대신 성별은 유의하다는 차이가 있었을 뿐 영향 요인의 방향성은 모두 동일했다. 일부 계수값의 크기(magnitude)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공공정책차원 변수 중 지역단위 소득 변수, 교육수준, 그리고 지역 생활환경 변수는 모형 I이 다소 작았지만, 문화적 환경, 안전 측면 환경, 지역 생활 환경에 대한 계수값은 기타 모형에 비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차원의 결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모형 II, III, IV를 비교하면, 공공정책차원 및 개인차원의 영향요인에 대한 모형 간 결과 값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로짓분석을 활용한 인과성 추정 결과가 누락변수 편이나

내생성 문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상대적으로 누락변수 편이 가능성을 내포한 모형 I 과 내생성 문제를 포함한 모형 II-IV의 결과에 통계적 유의성이나 영향 요인의 방향성 측면에서 아주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정규화 계수값을 활용한 공공정책 차원의 우선순위를 비교해 보면, 모형 간 차이가 더 작다. 참여나 신뢰를 제외하고는 모형에 관계없이 문화적 환경이 연결망 증진에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일관된 결과를 보인다. 현재 OECD 국가 중 연결망 지표가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편이고 매년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가 정부차원에서 한정된 자원과 능력으로 공공 정책의 우선순위를 찾는 것이라고 할 때, 이는 모형 간 비교로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모형 간 비교에서 종합적 신뢰가 연결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그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았다. 하지만, 모형 II-IV에 따르면 사회참여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사회적 연결망에 긍정적으로 답할 확률이 부정적으로 답할 확률에 비해 약 1.3정도 증가(계수값)하여, 약 3.6배(odds ratio)가 되는데, 이는 다른 공공정책 변수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큰 값이다. 즉, 사회 참여가 다른 어떤 공공정책 영역보다 사회적 연결망 증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형 III과 모형 IV는 종합적 신뢰를 개인적 신뢰와 사회적 신뢰로 구분한 것으로, 사회적 신뢰는 연결망과 긍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반면, 사적 신뢰는 오히려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는 가족이나 이웃에 대한 신뢰가 커지더라도 정작 금전적, 정신적, 물리적 도움을 청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와 달리 정부나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증가할 때 도움을 받을 기회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신뢰나 참여를 제외한 공공정책차원의 여러 요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현 위치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연결망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공공정책 변수에 비해 큰 수준은 아니었으나 거주기간은 모형에 관계없이 연결망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사없이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르면 거주지를 자주 변경하는 것에 비해 이웃이 많아지고 공간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지인이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오히려 연결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공동체에 관심이 많고 오래 거주할수록 연결망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나 반목관계도 형성될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꼭 '오래거주 = 연결망 증진'이라는 단선적 인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정책적 차원에서는 이러한 지역 내 갈등요소를 어떻게 관리하여 긍정적인 연결망 형성으로 연계시킬 수 있을지, 즉 지역 밀착적으로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지역단위 소득수준을 보면, 모형 I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자치구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을 뿐 연결망과의 상관관계 방향성은 모형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지역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 지역의 거주자가 고소득 지역 거주자에 비해 어

려울 때 금전적, 정신적, 물리적 도움을 받기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공공 정책의 초점이 저소득 지역에 더욱 집중될 필요가 있음을 반증한다. 게다가 모형에 관계없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사회적 연결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 기회의 확대가 사회적 연결망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외에 문화 환경, 체감 안전, 지역 생활환경, 그리고 보행환경 만족도 등의 요인의 경우 모형에 따라 사회적 연결망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나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화 계수를 기반으로 공공정책의 효과를 비교해 보면, 사회참여가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며, 그 다음 순위가 문화적 환경 만족도를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교육정책, 안전, 및 거주환경 등은 모형에 따라 효과의 순위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관되게 문화적 환경 만족도에 비해 효과가 약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정책차원에서는 사회 참여와 문화적 환경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 기회가 된다면 다른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연결망 개선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신뢰를 제외한 개인차원 변수들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모든 모형의 계수값이 양수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연결망이 크다고 볼 수 있으나, 모형 I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성별 간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했다. 연령의 경우 천현숙(2004)의 연구를 비롯하여 다수의 연구에서 연령은 사회적 자본과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통 퇴직 이전까지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활동이 많아지고 지인이 증가하므로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기회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서울서베이(2017)로 분석한 결과 일관되게 연령이 증가할수록 연결망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연결망의 관계를 선형관계로 추정하였으나, 퇴직 이후 급격히 사회관계망이 약화된 효과가 반영된 결과 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가구원수가 많아질수록 가사부담은 많아지겠지만 정서적 안정감도 함께 커질 수 있고 가족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예상대로 가구원수가 많아질수록 어려울 때 도움받을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가구 소득이 높은 가구가 낮은 가구에 비해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 관점을 가질 가능성이 클 수도 있고, 실제로 사회 활동을 활발히 할 가능성이 있어, 가구소득과 연결망은 서로 긍정적 상관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분석에서도 모형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재미있는 것은 월별가구소득보다는 결혼 여부가 사회적 연결망에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소득수준 증가에 비해 결혼하여 가구를 구성하는 것이 주변 도움에 보다 긍정적이라는 의미이다. 최근 경제적 안정성에 불안을 가진 다수의 미혼 성인 남녀가 결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고 결혼 연령이 계속 높아지는 것을 반영하면,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에

소득수준 향상 보다는 결혼이 큰 긍정효과가 있다는 본 연구 결과는 사회 정책적 측면에서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를 갖고 있다고 사회적 관계망이 낮은 것임을 확인했다. 장애가 있는 경우 모형에 관계없이 사회적 관계망과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하지만 장애인이 일반인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기회가 낮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반인의 따뜻한 시선과 차별없는 접근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모형의 적합도는 모형 I의 경우 약 12%, 그 이외 모형은 25-26%로 상당히 낮다.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 방식으로 추정된 로짓모형에서 독립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log-likelihood (-2LL)값에 비해 독립변수를 추가했을 때 log-likelihood가 얼마나 낮아지는지를 모형의 적합도로 판단한 psuedo-R2값이다. 하지만 해석은 일반 R2와 유사하다. 즉, 사회적 연결망 자체의 분산이 설명하는 변동 이 외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개인특성, 가구특성, 혹은 정책효과 등의 변수를 추가했을 때 이 요소들이 들어가면서 전체 사회적 연결망 분산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가 일반적인 R2인데, 분산대신 -2LL로 표현했을 뿐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그 값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인데, 굳이 이를 해석하자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공공정책과 관련된 여러 외생적 변수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회적 연결망의 개선이 쉽지는 않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 7〉 묵돈 차입 가능 여부(모형 V), 이쁠 때 도움 가능 여부(모형 VI) 및 우울할 때 대화 가능 여부(모형 VII)에 영향을 미친 요인 분석 결과

변수명	묵돈차입가능 여부 (Model V) [†]		이쁠 때 도움 가능 여부 (Model VI) [†]		우울할 때 대화 가능 여부 (Model VII) [†]	
	Coef.	Odds.	Coef.	Odds.	Coef.	Odds.
절편(intercept)	-5.525		-1.689		-2.421	
공공정책차원						
월 위지 거주기간(단위: 년)	-0.001	0.999	-0.002	0.998	-0.004	0.996
소득수준이 낮은 자치구	-0.247	0.781	0.092	1.096	0.338	1.402
소득수준이 높은 자치구	-0.020	0.980	0.276	1.318	-0.087	0.917
교육 수준(edu.) ^{††}	0.136	1.146	0.080	1.084	0.080	1.083
문화적 환경(culture env.)	0.242	1.274	0.181	1.199	0.298	1.347
안전 측면 환경(safety env.)	0.087	1.091	0.184	1.202	0.169	1.184
지역 생활 환경(amenity)	0.112	1.119	0.083	1.087	0.133	1.143
보행 환경(walkability)	0.144	1.155	0.166	1.181	0.268	1.307
사회 참여(s. participation)	1.206	3.339	1.326	3.766	1.598	4.943
개인차원						
성별(sex) [†]	0.018	1.018	0.029	1.029	-0.048	0.953
연령(age)	-0.008	0.992	-0.007	0.993	-0.010	0.990
가족원 수(# family mb.)	0.040	1.041	0.286	1.331	0.036	1.037
월별 가구소득(mth. inc.) [†]	0.823	2.278	0.835	2.306	0.795	2.214
결혼 여부(mry dum.)	0.343	1.409	0.747	2.110	0.545	1.724
장애 여부(dis. dum.)	-0.100	0.905	-0.338	0.713	-0.300	0.741
개인적 신뢰(individual Trust)	-0.063	0.939	0.281	1.324	0.332	1.394
사회적 신뢰(public Trust)	0.318	1.374	0.179	1.196	0.004	1.004
Model Fit Statistics [†]	Intercept Only	Int. Only & Cov.	Intercept Only	Int. Only & Cov.	Intercept Only	Int. Only & Cov.
AIC	55.118	41.196	37.960	22.602	45.315	25.076
SIC (BIC)	55.126	41.343	37.969	22.749	45.324	25.224
-2log L	55.116	41.162	37.958	22.568	45.313	25.042
Pseudo-R ²		25.32%		40.55%		44.73%
Beta Tests (Chi ² & p-value)						
LR, Score, & Wald Tests		13.954***, 13.049***, 7.544***		15.391***, 18.484***, 9.732***		20.274***, 22.133***, 9.264***

* 분식자료는 서울서베이(2017)이며, 표본수(Sample Size)는 42,687임.

† Coef.는 계수값(β), Odds.는 Odds Ratio, S.Coeff.는 정규화 계수값을 의미하며, 각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p-value: <.01, **p-value: <.05, *p-value: <.10으로 정의함.

†† 교육 수준 변수의 경우 1:교육받지 않음, 2:초등학교 졸업, 3:중학교 졸업, 4:고등학교 졸업, 5:전문대 졸업, 6:일반대학 졸업, 7:대학원 졸업으로 정의된 변수를 연속변수로 활용함.

‡ 명목변수인 성별의 참조집단은 여성(0)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1)에 대한 효과를 설명함; 월별 가구 소득수준의 단위는 1,000만원임.

‡‡ 모형의 적합성은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SIC (Schwarz Information Criterion) or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과 $-2 \log L$ (log-likelihood ratio)를 제시하였으며, 각각은 값이 낮을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좋음을 의미함. Pseudo-R²의 경우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McFadden (1974) 방식, 즉, $1 - (-2\log L_1 / -2\log L_0)$ 으로 정의함.

한편 앞서 본 연구의 사회적 연결망 지표 정의를 설명하며 언급한 대로, 사회적 연결망을 구성하는 금전적(모형 V), 물리적(모형 VI), 정신적(모형 VII) 도움 가능성에 사회적 연결망 분석과 동일한 변수들이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로 분석했다(표 7). <표 6>에서 내생성이나 누락변수 편이 가능성 때문에 모형을 4개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나 정책적 함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비록 표로 정리하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연결망의 세 가지 세부지표도 모형 I처럼 분석하더라도 <표 7>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 참여, 개인적 신뢰, 사회적 신뢰를 모두 포함한 모형으로 요약했다. 먼저 각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면 목돈 차입 가능성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 V가 약 25%로 아플 때 도움 가능 여부를 분석한 모형 VI(약 41%)나 우울할 때 도움가능 여부를 분석한 모형 VII(약 45%)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전 단락에서 해석한 방식으로 보면 금전적 차입은 공공정책지원이나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더라도 도움받기 가장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연구는 세 요소를 모두 만족할 때를 사회적 연결망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이들 세 요소별 영향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표 7>), 대다수 영향 요인은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나 일부 요인은 모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연결망 증진을 위한 공공정책의 방향성 설정에 있어 보다 세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공정책차원의 요인들을 살펴보면, 현 위치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사회적 연결망과 관련된 세부 세 요소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목돈 차입이나 아플 때 도움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우울할 때 도움 가능 여부만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앞서 지역 밀착형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는데, 다른 측면의 도움보다 정서적인 면에 대한 개선 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 소득 수준과 세부 연결망 지표의 관계에 있어서는 각 지표별로 조금 다른 특성을 보였다. 먼저 목돈차입 가능성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세 자치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수준이 높은 자치구의 경우 기타 자치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일반 자치구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거나 높은 자치구 모두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정도는 소득수준이 높은 자치구의 경우가 더 컸다. 재미있는 것은 우울할 때 대화가능 여부는 저소득 지역의 경우 일반지역 보다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으나, 오히려 고소득 지역에서는 일반지역에 비해 우울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결망의 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울 함 등 정신적 어려움 상태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결망 형성을 위한 공공정책은 고소득 지역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기타 공공정책차원의 교육, 문화·복지, 안전, 거주환경 및 사회참여 정책과 관련된 변수들

은 모형(V-VII) 간 차이가 크지 않았고, 사회참여가 여러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목돈 차입과 관련하여 사회참여 다음으로 효과적인 전략은 지역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전략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플 때 도움 가능 여부와 우울할 때 대화가능 여부는 사회 참여를 제외하고 각각 안전 측면 환경 만족도와 문화적 환경 만족도와 가장 밀접하게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 아플 때 물리적 도움으로 요청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문화적 환경이 개선되면 정서적 어려움을 나눌 대상을 찾기 용이하게 느끼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의 변수들은 신뢰와 관련된 변수와 장애 여부를 제외하고 세 가지 세부항목별 연결망과 모두 유사한 패턴을 띤다. 상관관계의 방향(sign)이나 통계적 유의성이 세부항목 모형 간에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그 정도를 자세히 보면 몇 가지 재미있는 값이 보인다.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세부항목 세 요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플 때 도움 가능 증가비율에 비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우울할 때 대화할 가능성의 증가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결혼여부의 경우도 비혼자에 비해 기혼자가 연결망 관련 모든 세부 항목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플 때 도움 받을 가능성, 우울할 때 대화할 가능성, 금전적 차입 가능성 순으로 영향관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목돈 차입 가능성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아플 때 도움을 받거나 우울할 때 대화 가능한 대상을 찾기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신뢰와 사회적 신뢰는 세부항목에 따라 다른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개인적 신뢰와 사회적 신뢰가 높을수록 목돈차입가능성과 각각 부정 및 긍정적 상관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웃이나 가족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기 어려운 반면, 정부나 사회에 대한 신뢰가 큰 경우 외부에서 목돈 차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편 개인적 및 사회적 신뢰가 클수록 아플 때 물리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적 신뢰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할 때 대화 가능 여부는 사회적 신뢰 증가와 무관한 반면, 가족이나 이웃과의 신뢰와는 상당히 높은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V. 결론 및 정책 시사점

본 연구는 OECD BLI 지수의 세부부문별·국가별 결과에 있어 공동체 부문, 즉 사회적 연결망의 순위가 조사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에 주목하고, 이러한 사회적 연결망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공정책의 역할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활용 가능한 통계데이터(서울서베이)를 이용하여 사회적 연결망의 현황을 간략히 검토하고, 사회적 연결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부문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정의되는 사회적 연결망의 경우 신뢰나 사회참여 등의 타 요인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을 가능성(내생성 이슈)이 있기 때문에, 단순로짓모형을 활용하여 사회적 연결망에 영향을 주는 단선적 인과관계만을 분석하되, 사회참여와 신뢰 변수를 추가하면서 그 결과 값을 비교하였다. 또한 세 가지 각각의 문항에 대한 공공정책 부문 변수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BLI에서 정의한 지원관계망의 질(quality of support network, %)을 참조로, 서울서베이에서 활용가능한 3가지 문항, 즉 (1)목돈 필요시 차입이 가능한 사람, (2)몸이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3)우울할 때 대화 가능한 사람 등 세 경우 모두 1명 이상 존재하는 경우를 1, 그 이외를 0으로 간주하되, 그 전체에서 1의 비율을 사회적 연결망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2017년 서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적 연결망이 존재하는 비율은 약 62%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연결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회참여 및 종합적 신뢰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참여 수준과 정부·이웃·가족 등 사회 일반에 대한 종합적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사회적 연결망 지표값이 높아진다. 특히 사회참여 요인이 타 공공정책 관련 변수에 비해 영향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이 다른 공공정책 영역보다 사회적 연결망 증진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신뢰를 개인적 신뢰와 사회적 신뢰로 세분하여 분석했을 때, 사회적 신뢰는 연결망과 긍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만 개인적 신뢰는 오히려 부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사회적 연결망이 자발적이고 자생적으로 발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최근에 크게 확대되고 있는 도시재생정책과 같은 사업에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 정책부문 요소 중에서는 문화적 환경이 연결망 증진에 대한 영향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육정책, 안전 및 거주환경 등의 요인 역시 사회적 연결망에 긍

정적인 영향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효과의 크기를 바탕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선정한다면, 사회참여와 문화적 환경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사회적 연결망 증진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의 변수 중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결혼을 한 사람일수록 사회적 연결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우리사회 젊은 청년층의 결혼 기피현상이 두드러지는 현상과 관련하여 사회 정책적 측면에서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서 오랜 거주한 사람일수록 이웃이 많아지고 친밀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 거주 기간은 모형에 관계없이 연결망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공동체에 관심이 많고 오래 거주할수록 연결망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나 반목관계도 형성될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꼭 '오래거주 = 연결망 증진'이라는 단선적 인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며, 정책적 차원에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세밀한 접근과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1)목돈 필요시 차입이 가능한 사람, (2)몸이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3)우울할 때 대화 가능한 사람 등 세 경우를 대상으로 개인적 차원 그리고 공공정책적 차원 부분의 세부 변수들의 영향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경향성은 비슷했는데, 교육, 문화 복지, 안전, 거주환경, 사회참여 관련 변수들은 모두 사회적 연결망에 긍정적인 영향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각 지표별로 조금 다른 특성은 나타났는데, 우선 목돈 차입 가능성에 있어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자치구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이 높은 자치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 우울할 때 대화가능 여부의 경우, 저소득 지역의 경우 일반지역보다 연결망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소득 지역에서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고소득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정책(우울함 등 정신적 어려움 상태 해소 목적)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목돈 차입과 관련하여 사회참여 다음으로 효과적인 전략은 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분석한 것과 같이 목돈 차입 여부에 가장 민감한 집단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낙후한 생활환경은 비용으로 인지될 수 있어 노후지역의 지역 환경 개선이 사회적 연결망 지표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요컨대 다양한 정책부문 별 영향효과 분석에 따르면 마을만들기 등 지역 주민의 참여에 기반한 지역단위 사업이 사회적 연결망 지표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가능하며, 이와 함께 지역의 문화 및 복지환경, 그리고 보행 및 주거환경에 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 연결망지표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다. 가족(결혼여부 및 가족 신뢰), 교육수준, 안전 등의 정책 부문 역시 사회적 연결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서 장기적으로 지표 개선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회적 연결망 증진을 위한 공공정책의 방향성 설정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연결망 및 사회적 자본의 증진은 좁은 범주의 공동체 활성화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넓은 범위의 접근이 필수적이며, 무엇보다 다양한 공공정책 부문에 있어 사회적 자본 증진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서 해외 다수의 국가들은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과 공공정책의 역할을 인지하고, 다양한 공공정책의 부문계획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증진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연결망 향상은 다양한 정책부문이 결합된 복합적인 성과임을 고려하여 공동체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종합적 영역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범부처가 참여할 수 있는 협력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세부 정책 부문을 고려한다면, 비록 공동체 관련 정책의 소관은 행정안전부(지역공동체과)이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생활SOC), 복지부(커뮤니티케어), 기재부(협동조합), 국토부(도시재생), 교육부(마을교육공동체) 등 부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컨트롤 타워가 되고, 관련 부처가 효율적으로 협력해서 사회적 연결망 강화를 위한 정책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BLI의 공동체 부문의 지수 향상이라는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임시적, 단편적 대응보다는 국가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성숙한 사회적 연결망이나 공동체 연대의식의 강화는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의 참여에 기반한 중장기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연결망의 현황과 실태조사에 기반하여 사회적 연결망 강화를 위한 장기 비전 및 전략, 정책 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예: 사회적 연결망 강화 기본계획), 이에 기반한 실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목표와 수단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나 시책, 사업 추진에 못지않게 이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교육과 홍보는 제도적 기능뿐 아니라 안전망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사회적 연결망이나 공동체 의식 등에 대한 교육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사회적 연결망의 중요성이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 수준이 낮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 강화의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책 부문을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지역주민과 다양한 주체의 참여에 기반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회적 연결망 증진에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회참여의 수준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형성 수준이 다르다는 연구는 다수인데(김영옥·권해수, 2011; 장유미, 2011; 박혜영·김정주, 2012), 이들 연구 역시 사회적 자본의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활동이나 참여의 수준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필요함

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부문을 막론하여 참여적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사회적 연결망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특히 도시재생이나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사회적 연결망 증진을 위한 효율적 전략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소 복잡한 개념인 삶의 질, 특히 그 세부요인 중 사회적 연결망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연결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정책 부문화하여 그 상대적 영향효과를 종합적·비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 형성 영향요인을 검토하는 선행연구(예: 사회적 자본과 주거환경, 보행환경 등)와는 차별화된다. 향후 사회적 연결망과 공공정책 간 영향관계를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단일 조사가 설계되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이 진행된다면 좀 더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은정. 2018. 근린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다양성, 사회자본의 상관관계 분석. 「서울도시연구」 19(2):73-86.
- 곽현근. 2003. 동네관련 사회자본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14(3): 259-285.
- 김경미.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연결망과 한국생활 만족도: 중국, 베트남, 일본 출신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5(2): 185-208.
- 김성연·이영환·박윤재. 2010. 사회적 자본 제고 요인 탐색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5(7): 83-75.
- 김영옥·권해수. 2011.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중고령층의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8(2): 103-130.
- 김영옥·정규식·천성봉. 2013. 도심재생사업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창원시 마산합포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2): 43-69.
- 김영제·한상일. 2008. 깨진 유리창이론에 대한 실증적 분석. 「행정논총」 46(4): 229-252.
- 김은경·김경희. 2018. 앱 세대의 사회적 관계와 행복: 사회적 연결망의 규모와 유형 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9(3): 275-301.
- 김선희 외. 2008.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I): 사회적 자본 영향요인 분석. 국토연구원.
- 김우락·구자훈. 2011. 주거지 정비사업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휴먼타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46(4): 105-119.
- 김주연. 2017. 한국 노인의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과 인지기능. 「한국인구학」 40(4): 1-24.
- 김태룡. 2006. 시민단체가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0(3): 27-51.
- 김해식·김성아. 2015. OECD BLI 지표를 통해 본 한국의 삶의 질. 「보건복지포럼」 2015.9.
- 김혜연. 2011. 사회적 자본이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3): 1-29.
- 김희경·이현주·박순미. 2010. 여성독거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 「한국노년학」 30(2): 279-292.
- 박선희·박병현. 2012. 근린지역 특성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39(2): 85-123.
- 박승규 외. 2015. 지역공동체 행복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승규 외. 2015. 지역공동체 행복지표 특성개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진도 외. 2017. 행복실감 부평 행복지표 개발. 한국지역진흥재단.

- 박혜영·김정주. 2012. 사회적 자본이 지역주민의 만족도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분석-지역축제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9(3): 47-67.
- 박희봉·김명환. 2001.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4(4): 219-237.
- 백명자. 2006. 사회자본의 영향요인 분석: 시민단체(NGO) 참여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
- 변미리. 2015. 메가시티 삶의 질과 서울형 행복지표. 서울연구원
- 변미리. 2018. 서울시 행복지표 개발 및 정책 연계. 「지역통계발전 포럼」.
- 서은국. 2014. 「행복의 기원」. 21세기북스.
- 서순복. 2010. 문화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 관한 연구. 「2010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발표논문집」. 2010.01: 145-162.
- 심수진·이희길. 2016. 삶의 질 측정: 국제동향과 통계청의 대응. 「조사연구」. 17(2): 185-205.
- 윤강재·이지현. 2012. Your Better Life Index를 이용한 OECD 국가의 삶의 질 측정. 「보건복지포럼」 2012.4.
- 엄창욱·박상우. 2011. 지역 향토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정책. 「지역사회연구」 19(1): 137-157.
- 이성은. 2005. 한국의 조직문화와 여성의 사회적 연결망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21(1): 125-164.
- 이인자. 2011. 사회적자본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교육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진. 2002.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시장에 관한 6가지 질문」. 한길사.
- 장유미. 201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사회적 자본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2): 261-289.
- 정현·전희정. 2019. 근린환경과 지역주민의 신체활동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신체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도시설계」 20(1): 91-110.
- 조권중·최지원. 2010. 서울시 중장기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증대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 조혜민·이수기. 2016. 근린환경특성과 주민의 보행활동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시 4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51(6): 59-77.
- 조혜민·이수기. 2017. 근린환경특성이 사회적 자본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행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52(4): 111-133.
- 차재권·류태진. 2017. 사회적 네트워크의 신뢰에 대한 영향분석: 사회자본론의 관점에서. 「21세기 정치학회보」 27(2): 51-80.
- 최민정. 2015.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연령대별 비교. 「보건사회연구」 35(2): 124-163.

- 최선미. 2017. 노인의 네트워크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소득수준과 접근성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3(3): 259-294.
- 천현숙. 2004. 대단지 아파트 주거단지의 사회자본. 「한국사회학」 38(4): 215-247.
- 천현숙·윤정숙. 2001. 아파트 주거문화의 진단과 대책. 국토연구원.
- 통계청. 2017.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작성결과. 2017.3.15. 보도자료.
- 한국사회학회. 2011.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통계개발원 연구용역보고서.
- Bourdieu, P. 1985. The form of capital: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John G. Richardson(eds.) New York: Greenwood Press. 241-258.
- Bullen P. and J. Onyx. 1998. Measuring Social Capital in Five Communities in NSW: A practitioner's Guide. Bullen and Onyx with Neighbourhood and Community Centers. Available from <http://www.mapl.com.au/pdf/SocialCapitalPracGuideBullen&Onyx.pdf>.
- Coleman, James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 Diener, E., & Oishi, S. 2005. The nonobvious social psychology of happiness. *Psychological Inquiry* 16(4): 162-167.
- Diener, E., & Seligman, M. E. P. 2002. Very happy people. *Psychological Science* 13(1): 81-84.
- Grootaert and van Bastelaer, 2001, Understanding and Measuring Social Capital: A Synthesis of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Social Capital, World Bank Social Capital Initiative Paper.
- Haws, C. A., Gray, D. D., Yurgelun-Todd, D. A., Moskos, M., Meyer, L. J., and Renshaw, P. F. 2009. The possible effect of altitude on regional variation in suicide rates. *Medical hypotheses* 73(4): 587-590.
- Helliwell, J. and Putnam. R. D.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Royal Society: Biology* 359: 1435-1446.
- Jencks, C. and S. E. Mayer. 1990. The social consequences of growing up in a poor neighborhood. in L.Lynn and M.McGeary(ed). *Inner City Poverty*.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John Helliwell, Richard Layard and Jeffrey Sachs, 2019, World Happiness Report 2019,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 Krishna, A. 2000. Creating and harnessing social capital, in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Partha Dasgupta and Ismail Serageldin, eds. Washington, DC: The

- World Bank.
- Lowndes V. and Pratchett, L., 2008, Public policy and social capital, in *The Handbook of Social Capital*, Oxford University Press.
- Lowndes V. and Wilson, D. 2001. Social capital and local governance: Exploring the institutional design variable. *Political Studies* 49: 629-647.
- Newton, K. 1999.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in Modern Europe, in J. van Deth et al.(eds). *Social Capital and European Democracy*. London: Routledge.
- OECD. 2017.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 Peter Van de Ven. 2015. Introduction to the Symposium on New Measures of Well-being: Perspectives from Statistical Offic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61(1): 1-3.
- PRI, 2005, Social Capital as a Public Policy Tool: Project Report. Canada Ottawa: PRI.
- Putnam, R.,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 Putnam, R.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Roberts, M. 2007. sharing space: Urban design and social mixing in mixed income new communities, *Planning Theory & Practice* 8(2): 183-204.
- Rydon, Y. and Holman, N. 2004. Reevaluating the contribution of social capital in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Local Environment* 9(2): 117-133.
- Sarracino, F. 2010. Social capital and subjective well-being trends: Comparing 11 western European countries.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9: 482-517.
- Sen, Amartya. 1993. Capability and well-being. in Nussbaum, M. and Amartya S. (eds), *The Quality of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tiglitz, Joseph E., Sen, A. and Jean-Paul Fitoussi. 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www.stiglitz-sen-fitoussi.fr.
- UN. 2019. World Happiness Report 2019.
- UNDP. 2013. Human Development Report 2013: Human Development Indicators. UNDP.
- Wegener, B. 1991. Job mobility and social ties: Social resources, prior job, and status attain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1): 60-71.
- Woolcock, M. 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 151-208.

김 상 만: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도시계획 및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포용발전실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참여계획, 협력적 거버넌스, 사회혁신,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 지역계획 및 정책 등이다. 최근의 논문으로 “The working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Evaluating collaborative community-building initiatives in Korea”(Urban Studies, 2016), “From protest to collaboration: The evolution of the community movements amid sociopolitical transformation in South Korea”(Urban Studies, 2017),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관리 특성분석”(한국지역개발학회, 2018) 등이 있다(E-mail: sangminkim@krila.re.kr).

김 현 호: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 (정보기술산업의 장소특성적 입지에 관한 연구-서울시를 사례로, 2002)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있다. 관심분야는 도시 및 지역계획, 낙후지역 개발, 지역공동체 및 거버넌스, 지역간 협력발전, 지자체의 산업 및 문화정책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정책 설계의 쟁점 분석: 정책의 추진시스템을 중심으로”(2017), “대성동 마을만들기의 거버넌스 특성분석: 시민참여 및 시민주도의 관점에서”(2016), “지역간 협력발전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새 정부 정책의 과제”(2013) 등이 있다(hhkim@krila.re.kr).

이 성 원: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에서 지역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 혁신적 지역 발전, 스마트시티,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하다. 최근의 논문으로 “The influence of urban form on GHG emissions in the U.S. household sector”(Energy Policy, 2014), “Comparing the impacts of local land use and urban spatial structure on household VMT and GHG emissions”(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Forthcoming),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시 확산 방지에 미친 영향”(국토계획, 2018) 등이 있다(E-mail: swl0906@gwnu.ac.kr).